

2. 고난의 군생활과 힘든 유학시절

사태를 바로 보는 청년의 눈
전대신문

HOME > 사회 > 일반

40년 간 지속돼 온 트라우마.."편하게 누워 자고 싶다"

✎ 글 한정훈 기자, 사진 이의진 수습기자 |
🕒 승인 2022.07.03 23:55

■1980년 4월 30일자 <영대신문>에 '학생들이 구상한 개헌안' 기고해 고초 겪은 조덕호 대구대 교수 인터뷰

학생들이 구상한 유신헌법 개헌안 발표 후 입대, 5·18 주동자로 체포

주모자, 내란죄, 간첩죄...바뀌는 죄명 아래 지속된 고초

눈 감으면 그때 기억 떠올라..."5·18 생존자 정신적 피해 보상, 국가 존립 이유"



"박정희 군부 독재를 지적, 국가 체제를 바로잡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젊은이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유신헌법 개정안을 만들어 <영대신문>에 기고했다. 영남대학교 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그 내용을 설명했다."

1980년 4월 30일 <영대신문>에 유신헌법 개헌안을 실었다. 제목은 '학생들이 구상한 개헌안'. 당시 대구의 한 스터디그룹은 1년간 공부해 이 원고를 완성했다. 영남대학교(영남대) 행정학과 77학번, 현재 대구대학교 행정학과 조덕호 교수(64)는 <영대신문>에 유신헌법 개정안 원고를 게재한 이후 군에 입대했지만 5·18민중항쟁(5·18) 주동자로 몰리며 고문을 당했다.

인한 트라우마라는 것을 깨닫고 조 교수는 올해 광주트라우마센터를 찾았다. 기자는 지난 1일 광주트라우마센터에서 조 교수를 만나 1980년 당시 일과 이후 삶에 대해 들었다.

Q. 1980년 당시 유신헌법 개정안을 만들게 된 계기는?

“유신헌법 개정안을 만들기 전 행정고시 공부를 했다. 시대를 뒤로 한 채 공부하는 모습이 비겁해 보였다. 그래서 4학년을 등록하지 않고 그 등록금을 가지고 유신헌법 개정안을 만들기 시작했다. 학생 운동보다는 헌법 개정안을 만들고 국가에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

기숙사에서 연구를 시작해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하나, 둘 모았다. 처음에는 함께 모이기도 어려웠다.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됐을 때 10·26 사태가 발생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연구에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이에 헌법 개정 작업을 서둘렀지만, 다시 전두환으로 인해 연구가 더 어려워졌다.”

Q. 유신헌법 개정안을 <영대신문>에 기고하게 된 배경은?

“유신헌법 개정안을 만들고 <영대신문>에 이를 기고했다. 해당 내용을 일간지에 싣고 싶었지만, 어떤 일간지도 받아주지 않았다. 그래서 영남대 신문사에 찾아가 편집국장과 이야기했다. 당시 <영대신문> 편집국장이 자신의 자리를 걸고 신문에 싣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이 인쇄되자마자 계엄군에 걸려 배포가 금지됐다. 편집국장의 묵인하에 신문을 밤에 훔쳐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유신헌법 개정안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게 됐다.

<영대신문>에 기고한 내용이 유신헌법 개정안의 전문은 아니다. 개정안 전문은 양이 많아 신문에는 일부만 실었다. 세계 50개국 헌법을 연구해서 조문마다 논문을 다 붙였다. 논문 자료를 후배에게 맡기고 군대에 갔는데 이후 후배와 연락이 되지 않아 현재는 자료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 <영대신문>에 실린 유신헌법 개정안이 세상에 남아 있는 유일한 것이다.”

Q. <영대신문>에 유신헌법 개정안을 기고했을 때 대학 분위기는?

“<영대신문>에 기고한 뒤 영남대 강당에서 유신헌법 개정안 공청회를 했다. 강당이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대구·경북 지역의 학생들이 공청회를 보기 위해 영남대에 왔다. 궁금증 때문이었을 것이다. 학생들이 헌법을 개정해 발표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데모만 한 것이 아니라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에 자부심이 있다. 공청회가 끝난 후 학생들과 유신헌법 철폐를 외치며 학교를 돌았다. 이를 계기로 영남대 내 민주화운동에 불이 붙었다.”

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살아왔다.”



Q. 제대 후 생활은 어땠는지?

“제대하고 4학년을 마친 후 유학을 갔다. 힘든 몸을 끌고 가서 그런지 몸이 더 안 좋아졌다. 4개월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군대에서 겪은 고문으로 간과 폐가 한 번에 고장 났기 때문이다. 간과 폐가 같이 아파 치료를 하지 못했다. 삶의 목표가 없어졌지만, 민간요법으로 몸에 좋다는 것은 다 동원해 다시 유학의 길에 올랐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진 것이었다. 의지와 관계없이 인생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갔다. 트라우마를 잊고 살아가기 위해, 생존 방법으로 3가지에 중독됐다. 일과 술, 운동. 이 세 가지로 받침대를 만들어 단단히 살아간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이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졌고 번아웃과 공황장애로 죽을 뻔했다. 지금도 영화를 못 본다. 영화에서 싸우는 장면이나 총칼 드는 장면이 나오면 그때의 기억이 올라오기 때문이다.”

Q. 5·18 당시 계엄군에게 가혹 행위를 당한 생존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생존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친구에게 돈을 빌리면 갚아야 하는 것

Q. 대구에서 광주트라우마센터까지의 물리적 거리가 부담일 것 같은데 이를 포함하여 국가폭력 생존자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서 어떤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번아웃과 공황장애가 트라우마로 인한 것임을 깨닫고 광주트라우마센터를 찾았다. 이런 센터가 광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일상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본다. 몸을 치료하는 병원은 많다. 그렇지만 정신을 치료하는 병원은 거의 없다. 지금까지 몸만 치료했지 마음 치료는 하지 않은 것이다. 교수가 정신병원에 다닌다고 하면 이상하게 본다. 그래서 치료하지 못한 채 40년 넘게 살아왔다. 국가 폭력으로 일어난 트라우마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한 트라우마도 마음 놓고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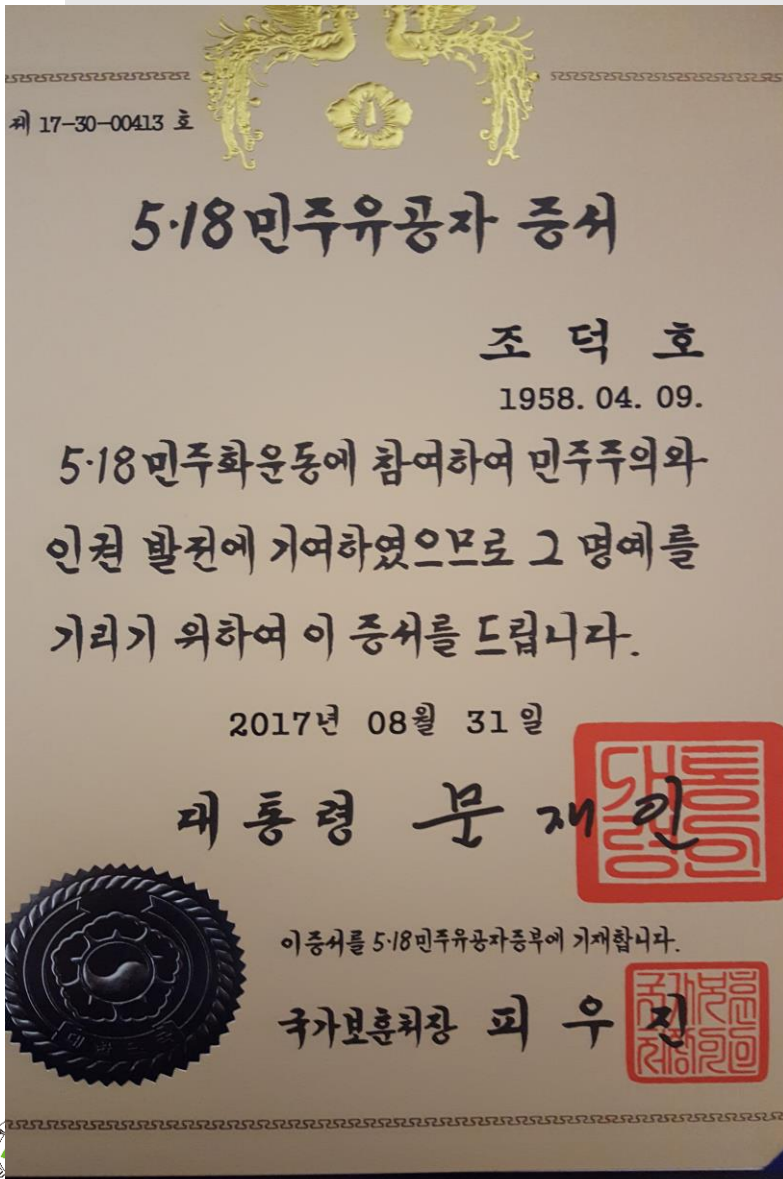
Q. 광주 시민이나 전남대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광주 시민을 포함한 1980년 당시 세대들이 반드시 존중받아야 한다. 민주주의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게 5·18이다. 5·18은 전국에서 일어났다. 그것이 광주에 유독 집중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5·18을 광주로 국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5·18 정신의 대표적인 상징이 광주인 것은 맞다. 이에 광주 시민들은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

지금까지 경쟁만 하며 산 학생들에게 이제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행복한 삶을 살려면 일만 해서는 안 된다. 노래하고 춤추는 것과 같이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야 한다.”



3. 끝나지 않는 민주화 운동과 국가 바로 세우기



조 덕 호 이력서

성 명	조 덕 호 (曹 德鎬: Cho, Deokho)				
생년월일	1958.04.09				
직 장	38453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행정학과			053-850-6167	
	기관명	대구대학교 행정학과	직위	교수	
E-mail	chodh@daegu.ac.kr		휴대폰		
분 야	도시 및 지역 계획	전공	도시 및 지역계획	강의 분야	도시행정론, 전자정부론 행정정보시스템
학 력	1984년 2월 22일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학사 졸업 1986년 2월 23일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석사 졸업(도시계획) 1993년 8월 31일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박사 졸업(Ph.D. Urban and Regional Planning)				
경 력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장(2020.03~ 2022.02), 국토도시계획학회 대구경북지회장(2013~2014) EAROPH 한국지회 부회장(2014~2015), 대구대학교 행정대학 학장 역임(2012-2014) 한국정부학회 회장 역임(2010-2011), 대한지방자치학회 회장 역임(2008-2009) 전국행정대학원 원장 협의회 의장 역임(2013-2014) , 농지연금 도입방안 연구(2008), 주택연금 도입방안 연구 (2004), 한국연구재단 10년 우수연구상 수상, 세계인명사전등재(2017-18: MARUQUIS Who's Who in the World)				
연구실적 요약(2021년 현재)	2023년 5월 28일 현재 국내외학술지논문 143편, 국내외학술대회논문 262편, 국내외 저역서 28권 국내외 연구비 수혜 34건, 연구재단 연구비 수혜실적: 2,185,243,700원, 국내외수상실적 7건, 세계 50여 개국 학술대회 및 150여 회 국제학술대회 참석 홈페이지(https://mcms.daegu.ac.kr/user/chodh) 상세프로필/이력서 참조 유튜브:// www.youtube.com '조덕호 교수' (www.facebook.com '조덕호 교수')				



내 직장은 어디에 있을까?

제4차 산업혁명을 넘어 제5차 정신혁명으로

대구대학교

행정학과 조덕호

chodh@daegu.ac.kr

(<https://mcms.daegu.ac.kr/user/chodh>)

구글 검색어 '조덕호 교수'

(www.youtube.com '조덕호 교수')

(www.facebook.com '조덕호 교수')

목 차

- I. 서론
- II. 패러다임 대전환과 공부에서 학문으로
- III. 미래사회예측과 국가대응전략: 내 직장은?
- IV. 제5차 정신혁명 실현: 한류공원과 맛동산
- V. 결론

I. 서론

- 인간은 본능적으로 살던 대로 산다: 자발의 시대는 달리 살아야 한다.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제4차 산업혁명: 클라우드 슈밥(2016), 4k, 100k, 초속 30만k(모든 변화가 눈에 안보임): 각자 다른 방향으로 달려야 한다.
- 과거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 선례를 찾다가 다른 지역, 다른 나라 그래도 없으면 질책
- 우리나라 교육의 특성: 공부만 하고 학문을 하지 않는다.
- 정치: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지혜 민주주의
- 경제: 시장경제, 공유경제를 넘어서는 구독경제와 역구독 경제
- 사회: ESSD를 넘어서는 ESSC, 무위자연과 지지불태(知止不殆): 노자 도덕경
- 새로운 세상: 물질혁명을 넘어서 정신혁명으로: 종지는 어디일까?

II. 패러다임 대전환과 공부에서 학문으로

1. 디지털 대전환

- 발전이란 무엇인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는 과정임
- 대화형 인공지능(챗GPT, Bard), 죽은 사람을 인공지능으로 재현, 사물인터넷, 로봇의 시대, 신유목인 시대: 주역의 음양, 바둑의 흑백, 컴퓨터의 01의 의미, AI가 사람을 이기는 세상
- 데이터 주권과 공짜 데이터: 주유소의 기름은 공짜인가?
- 개인정보 보호와 가치: 값은 얼마일까?
- 옛 먹이지 마라: 연말 정산
- 디지털 격차와 공동체 사회 붕괴, 부의 편중, 갈등의 심화
- 청년실업과 창직의 시대: 모래시계
- 공부의 시대를 넘어 본격적인 학문의 시대에 돌입



강의실 대전환: 듣는 강의에서 오감 강의로(대구 대학교 건학이념과 교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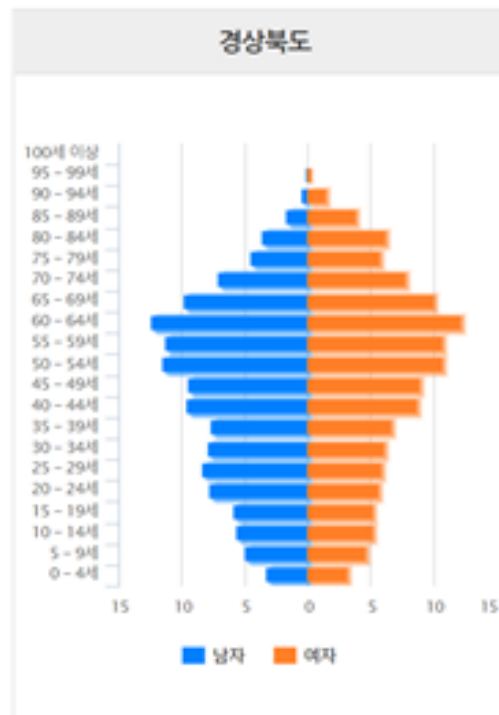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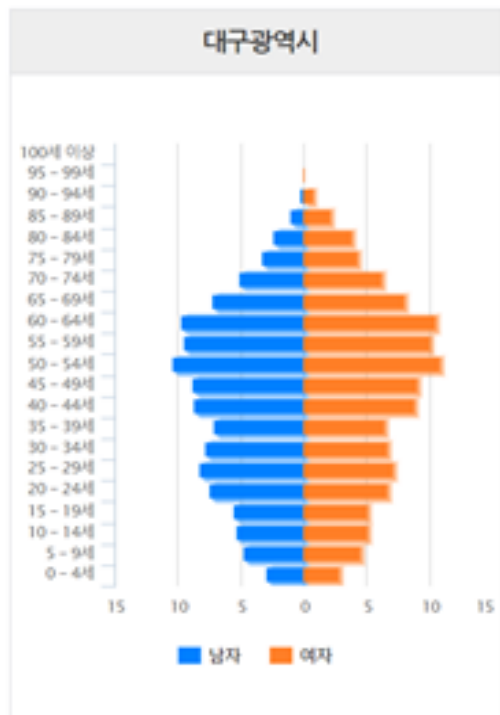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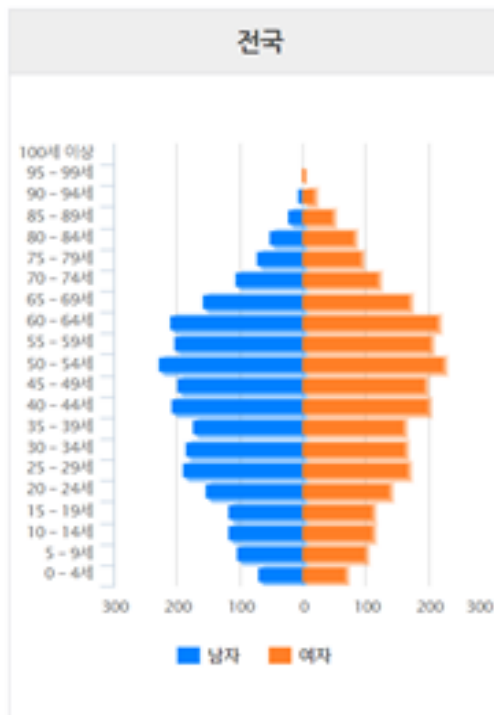
- http://mcms.daegu.ac.kr/user/chodh/user_source/CPE1.htm
- *They contribute to change the society totally in each part; What can I Do?*
- *Have a big dream and add your face (Daegu University):*
- *Love yourself (School Lesson (Have a big dream) and Foundation ideology(Love, light, and freedom)*
- *Change your study paradigm from industrial society to information age for your future (it is a requirement for information society)*
- *Forth Industrial Revolution (AI and IOT).*
- *챗GPT, Bard를 넘어 제5차 정신혁명으로*

2. 인구소멸과 지방대학 및 지방소멸의 실태

- 인구소멸

- 세계 최하위 출산율: 행복하지 않는 나라로 인구소멸에 이어 국가소멸
- 인구정책에서 정부의 무능함: 누구도 1년에 2살을 먹거나 2년에 1살을 먹지 않는다. 불확실성이 없는 정책이다. 15년간 280조원투자에도 불구하고 점차 낮아지는 출산율

◀ 2023년 ▶



◀ 2050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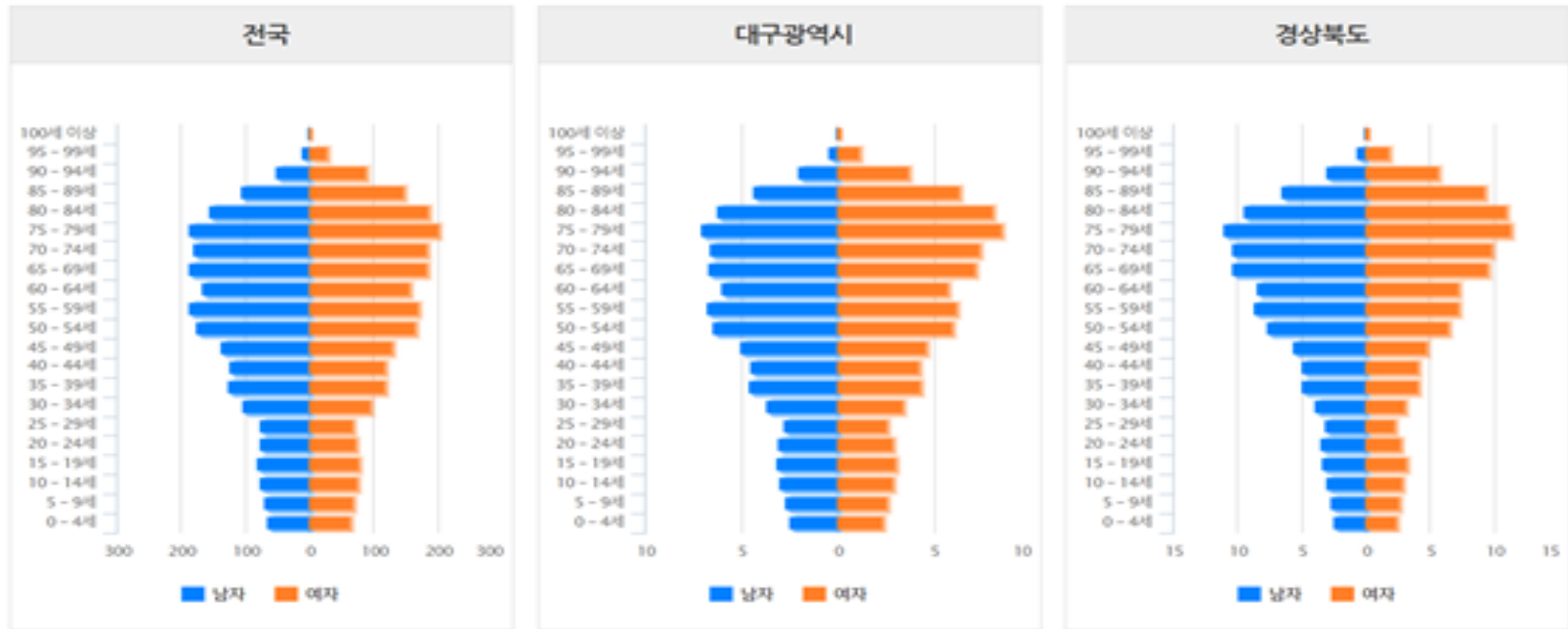


그림 1. 인구구조 변화와 예측

- 감사원: 추세라면 2047년에는 전국 모든 지역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바뀌고, 95년 뒤인 2117에는 대한민국의 인구가 약 1천500만 명. 전국 229개 시·군·구 중에서 서울권 8개 지역을 제외하곤 모두 소멸 고위험지역이 되며, 그 8개 지역도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
- 전체 인구는 지금의 1/3로 줄어들지만, 어린이와 젊은이가 거의 없는 중·고령층 중심의 역피라미드 인구구조를 가지게 되어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 소멸의 위기
- 인구소멸에 대한 국가적인 인식: 냄비 속에 든 개구리. 이는 정부의 무능과 직무 유기이며, 시민은 당장 자기 세대의 이익을 위해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음, 기르는 개의 숫자 만큼 자식을 낳으면 당장에 해결

- 지방소멸방지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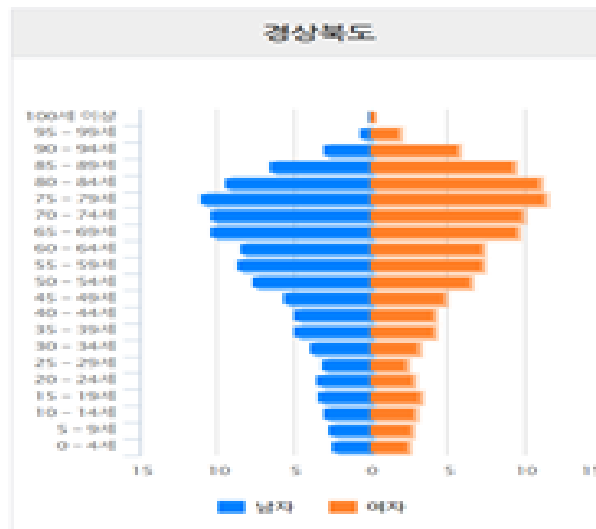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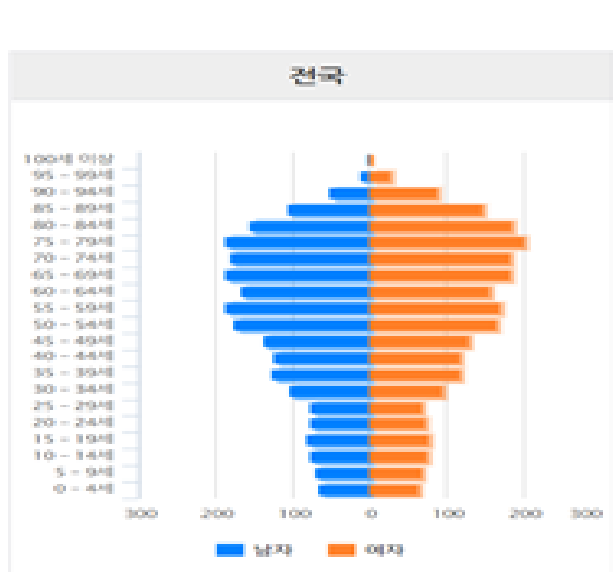
- 고속도로와 지방소멸: 뒷구멍이 뚫린 회오리형 깔때기 구조
- 고속도로는 서울로 사람과 재화가 잘 수송될 수 있도록 설계됨
- 고속도로는 국토 불균형 발전의 대명사: 중소도시의 쇠퇴
- 국도나 지방도가 개통되면 그 지역은 발전
- 고속도로의 역할 제 정립: 고속철도와 역할분담, hyperloop 시대 대비
- 나들목과 고소도로 휴게소의 단계적 철폐 후 진·출입로 대폭 확대
-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속도로 휴게소 지방으로 돌려주기
- 미국의 고속도로는 지역균형발전의 대명사임

3.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역구독 경제

- 시장경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별. 물건을 배타적으로 소비, 결국 자원낭비를 초래
- 공유경제: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코로나 19와 인간의 욕망으로 쇠퇴): 우버, 에어비엔비 등
- 구독경제: 신문구독 사용가치에 초점을 둠: 옷, 보석, 넷플릭스, 유튜브, 차량구독 등
- 역구독 경제와 데이터 주권: 역구독 경제는 돈을 받고 이용하는 것임. 개인 데이터를 국가가 무단으로 사용,
- 역구독 농촌 빈집과 폐농지의 활용: 청년들의 Ruralization
- 기울어진 시소: 시소를 균형 잡는 방법은 간단.

4. 역구독 경제와 청년연금과 창직

- ‘청춘을 돌려다오와 아프니까 청춘이다’의 차이는 무엇일까?
- 청춘이 아픈 이유: 교육문제와 직업문제
- 이미 4차산업사회 한가운데에 진입하고 있지만 아직도 교육은 2차 산업 사회의 대량 생산 교육에 머무르고 있음
- Wearable 컴퓨터와 주입식 지식교육: 수능을 없애면 노벨상이 나온다.



그림a 2050년 전국인구구조

그림b 2050년 경북인구구조

그림c 미래의 직업구조

<그림 2> 조직, 인구, 직업구조의 변환

- 직업의 구조: Sandglass 시대.
- 직업의 종류: AI한테 일을 시키는 직업 AI가 시키는 대로 하는 : 아마존과 쿠팡 플랫폼 기업의 성장.
- 젊은이의 1/3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있음. 5급 공무원 고시제도와 사법시험 폐지. 지식교육을 넘어 창조시대로 전환
- 최초생산자, 최종 소비자 및 플랫폼 기업과 택배사업의 발달이 핵심
- 역구독 창직 제도와 각 분야의 BTS만들기
- 청년연금: 연기금을 미래세대에 투자 후 나중에 회수
- 신유목민 시대에 Two jobs and Two Housing
- 농촌 문턱 낮추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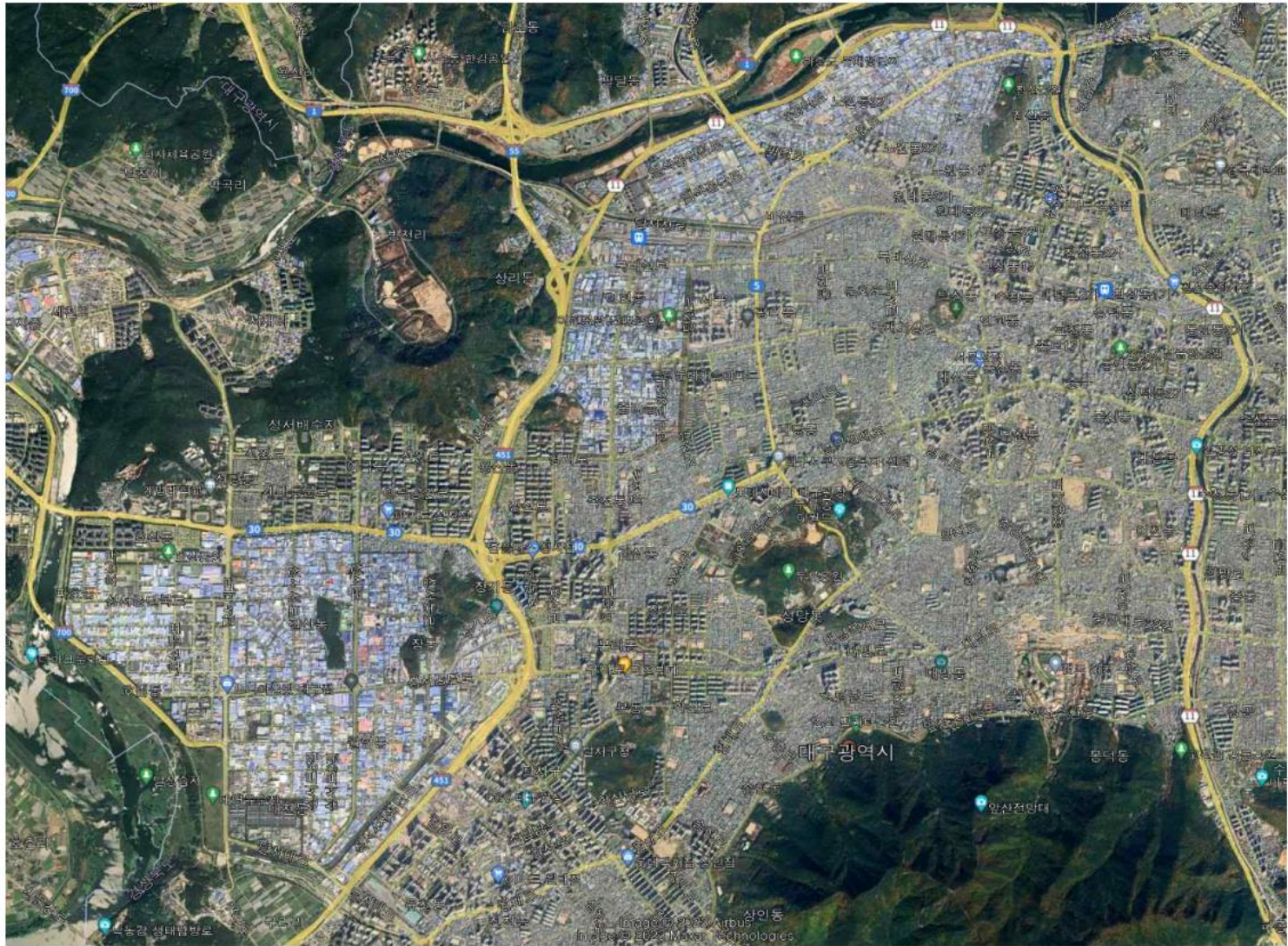
5. 신유목인(new nomad) 시대의 삶과 일

- 일하는 방식의 대전환: 장소와 시간의 무애(無碍).
- 책상위의 컴퓨터는 곧 사라진다. 압축적 성장과 압축적 문제(G7과 이태원 참사): 지도자의 할 일
- 휴대폰과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 하는 사람(출퇴근과 사무실의 근본 변화)
- 자발의 시대. 일을 시키는 대로 하면 안됨(AI로 대체). 일인 신방(신문과 방송)사 시대다.
- 구독 및 역구독경제와 신유목민: 농어촌의 주택과 농지를 구독한다. Two jobs and two housing policy

III. 미래사회 예측과 국가 대응전략

1. 기후위기와 공익풍수(公益風水)

1. 노자의 무위자연과 지속가능한 변화
2. 세계 7위 경제대국과 세계 4대 기후 악당(사우디, 호주, 뉴질랜드, 대한민국)
3. 기후변화대응지수: 2020년 유엔기후변화 당사국 61개국 중 58위: 꺼꾸로 가는 윤석열정부
4. 창조도시 두바이와 사우디의 The Line 프로젝트(빈 살라 왕세자)
5. 공익 풍수(지구온난화와 가뭄과 홍수: 대구의 대기질과 공익 풍수의 문제)와 재난경제학



자료: 구글 위성영상

<그림 1>. 대구광역시의 공익풍수와 문제점



<그림 2> .인공태양 국가산업공원(예: 프랑스 ITER 인공태양 실험로)

2. 원효(화엄)의 무애사상과 스마트폰

1. 인류의 발달: 시간과 공간을 극복하는 과정: 걷고, 자동차, 비행기, 인터넷(보이지 않음)
2. 스마트폰과 스티브 잡스: 명상전문가로 단순함의 미학과 상식과 관습에 도전하여 물질의 무애를 만듦
3. 기술적으로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
4. 나 대신 우리 문화와 홍익인간:
5. 마음의 스마트폰과 원효의 무애사상: 유불선기가 회통하는 세계 정신문명의 성지

3. 위·지·통·Q 빅데이터 분석과 내 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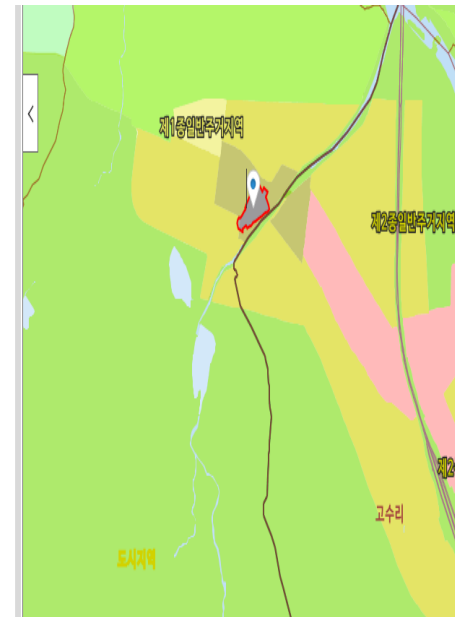
1. 북한 미사일과 위성 누리호와 달 탐사선 다누리호
2. 망원경과 현미경이 융합된 눈을 가진 사람
3. AI 머리속에 무엇이 들어 있을까? 행렬의 연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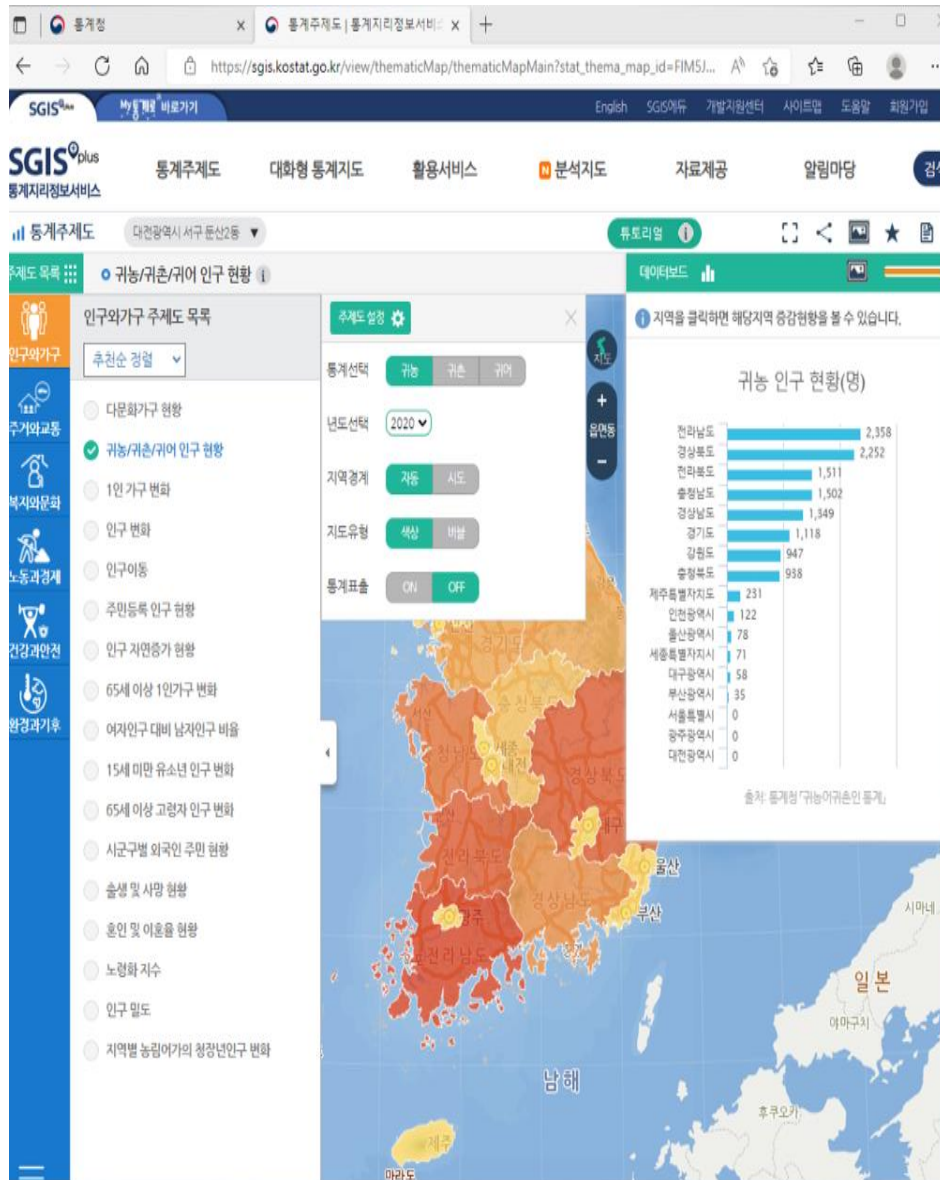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역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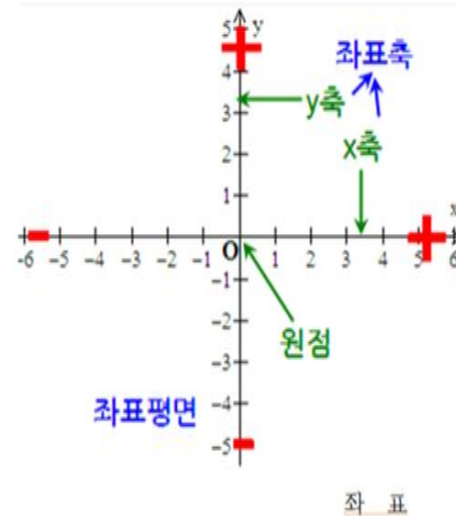
용도지역

- 도시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생산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계획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농림지역





출처: <https://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직각 삼각형을 통한 정의 [한집]

C가 직각인 삼각형 ABC에서, 각 A, B, C의 대변(마루보는 변)의 길이를 a, b, h 라고 할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text{사인: } \sin A = \frac{a}{h}$$

$$\text{코사인: } \cos A = \frac{b}{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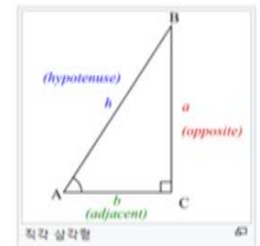
$$\text{탄젠트: } \tan A = \frac{a}{b}$$

또한,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는 위 세 함수의 역수가 되며,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text{코시컨트: } \csc A = \frac{h}{a} = \frac{1}{\sin A}$$

$$\text{시컨트: } \sec A = \frac{h}{b} = \frac{1}{\cos A}$$

$$\text{코탄젠트: } \cot A = \frac{b}{a} = \frac{1}{\tan A}$$



단위원을 통한 정의 [한집]

좌표평면에서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r 의 길이가 1인 원을 단위원이라고 한다. 이 단위원 위의 점 A (x, y)에 대해, x축과 점 A와 원점을 잇는 직선간의 각을 θ 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sin \theta = \frac{y}{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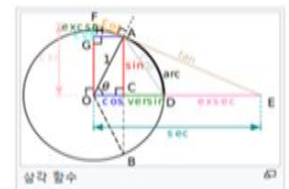
$$\cos \theta = \frac{x}{r}$$

$$\tan \theta = \frac{\sin \theta}{\cos \theta} = \frac{y}{x}$$

$$\sec \theta = \frac{1}{\cos \theta}$$

$$\csc \theta = \frac{1}{\sin \the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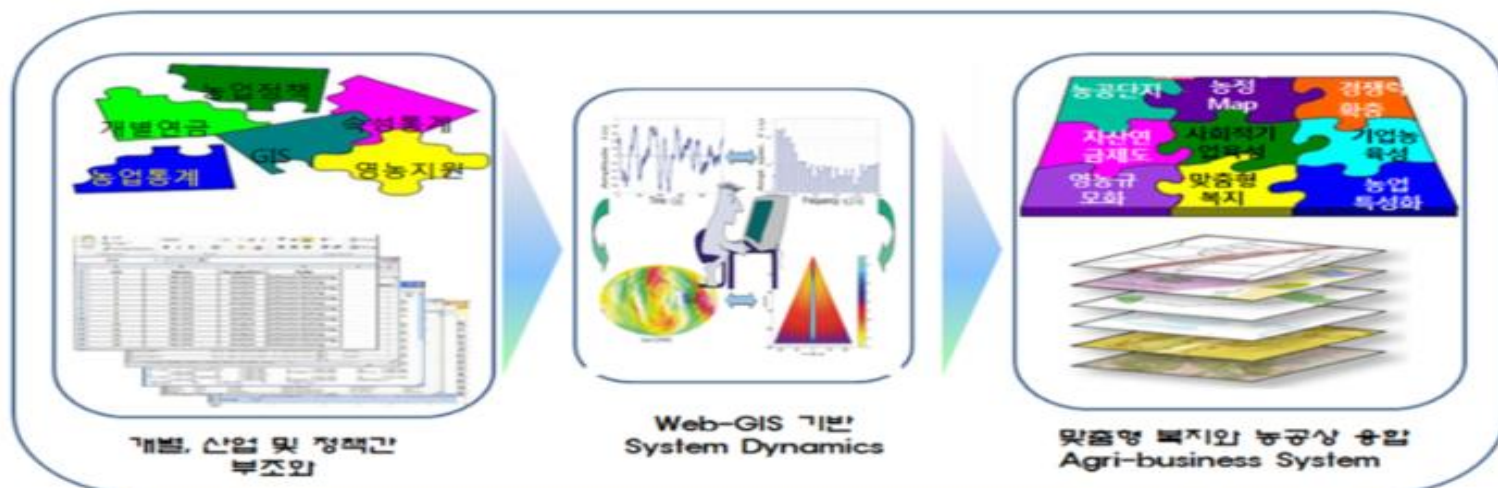
$$\cot \theta = \frac{1}{\tan \theta} = \frac{\cos \theta}{\sin \theta}$$





출처: <https://sgis.kostat.go.kr/jsp/pyramid/pyramid1.jsp>

<그림 9> 메타버스 기반 맞춤형 정부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



<그림 4> 위·지·통 융합 빅데이터와 QGIS

4. 고속도로 나들목과 지방소멸대책

1. 국가 발전과 고속도로: 국가 발전의 원동력
2. 고속도로 총연장은 1997년에는 2,000km, 2007년에는 3,000km, 2012년에는 4,000km를 돌파, 전국이 사통 팔달
3. 고속철도,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로의 역할 재정립
4. 고속도로 휴게소와 나들목이 지역균형발전에 역행
5. 국도 및 지방도로와 고속도로의 차이
6. 고속도로 휴게소를 모두 없애고 그 지역에서 해결하도록 한다.



5. 비싼 원유값과 공짜 데이터

1. 탄소제로 2050과 인공 태양이 거의 반이 만들어짐: 인공태양산업공원
2. 공짜 데이터와 개인정보
3. 국민 엇 먹이기와 연말 정산
4. AI를 활용한 입법, 사법, 행정, 예결산의 총 점검: 경북의 AI 도지사
5. 향후 디지털 격차와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



6. 제4차 산업혁명에서 제5차 정신혁명으로

- 무력의 시대는 끝나고 문력의 시대로 진입
- 석가모니부처, 공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문명과 현재의 모습
- 금속활자, 목활자: 세종대왕은 왜 한글 교과서를 만들지 않았을까?
- 서구의 명상열풍과 참선의 고향 대한민국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과 5차 정신혁명

(revolution of WHAT) vs (revolution of HOW) (meditation)

				
제 1차 산업혁명	제 2차 산업혁명	제 3차 산업혁명	제 4차 산업혁명	제5차 정신혁명
18세기	19세기~20세기 초	20세기 후반	2015년~	지금부터 ~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화 혁명	전기 에너지 기반의 대량생산 혁명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 혁명	IOT/CPS/인공지능 기반의 만물 초지능 혁명	물질적/정신적 시공의 장애가 없는 무애
증기기관을 활용하여 영국의 섬유공업이 거대산업화	공장에 전력이 보급 되어 벨트 컨베이어를 사용한 대량 생산보급	인터넷과 스마트 혁명으로 미국주도의 글로벌 IT기업 부상	사람, 사물, 공간을 초연결, 초지능화 하여 산업구조 사회 시스템 혁신	지구촌시대 모든 장애가 극복되는 행복한 세상으로

<그림 3> 1,2,3,4차 산업혁명에서 5차 정신혁명으로

IV. 제5차 정신혁명 실현

1. 어린이가 굶지 않는 세상(NHCW)

- 새마을 운동에서 어린이가 굶지 않는 세상으로 승화되어야 한다 (NHCW)
- 천지 만물이 태어나지 말자 굶는 경우는 인간 밖에 없음: 8억명이 굶주림. 4천 5백만명이 기아상태. 지구촌 어린이 7명중 1명이 굶주림
- UNICEF와 Save the Children을 넘어 유엔에 NHCW를 대한민국에서 시작하고 유엔 본회의장에서 대한민국 지도자가 제안하고 BTS가 주제가 될 부르는 세상
- 세계 주요 선진국들과 삼성, LG,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 소프트 등의 기업들이 동참하여 재정지원
- 대한민국의 홍익인간의 이념을 실현하고, 전 세계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고 북한 어린이를 포함한 세상 어린이들의 희망이 되며 통일의 씨앗이 되어야 함



2. 지덕체(智德體)에서 체덕지(體德智)로 공부에서 학문으로: 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과 지방대학의 부활

- 교육의 목적: 말하고 글쓰기를 통하여 창의력을 발하는 시대인데 현재 지식 머릿속에 넣기
- 수능을 없애면 노벨상이 나온다 (CSAT).
- 세계 최고의 대학인 미네르바 대학과 국내 태재 대학의 출현
- 지덕체(智德體)에서 체덕지(體德智)로 변화시켜야
- 교육의 핵심은 결과 자신의 몸과 마음의 수행으로 귀결되지만 대한민국 교육은 오직 칩에만 매달려 있다.
- 챗GPT와 Bard를 이용하여 강의하는 학생과 토론하는 교수: 이것이 지방대학을 살리는 길이다.



3. 역구독 창직과 청년 연금, 한류공원

- ‘청춘을 돌려다오’와 ‘아프니까 청춘이다’
- 행복하니까 청춘이다: 어떻게?
- 교육문제와 취업문제
- 공짜 데이터와 청년 연금
- 5차혁명시대는 스스로 직장을 만들고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
- 한류 열풍과 BTS 10 만들기 프로젝트
- 국내 및 국제적인 성평등과 명상관련 학술대회 개최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책사업으로 한류의 성지로 만듦
- 창의력과 한류공원(Korean wave center): 한류의 실체를 만듦. 명상센터, 한국 전통술 마을, 무애의 춤과 각종 한류 경험 프로그램(지구촌 줄다리기 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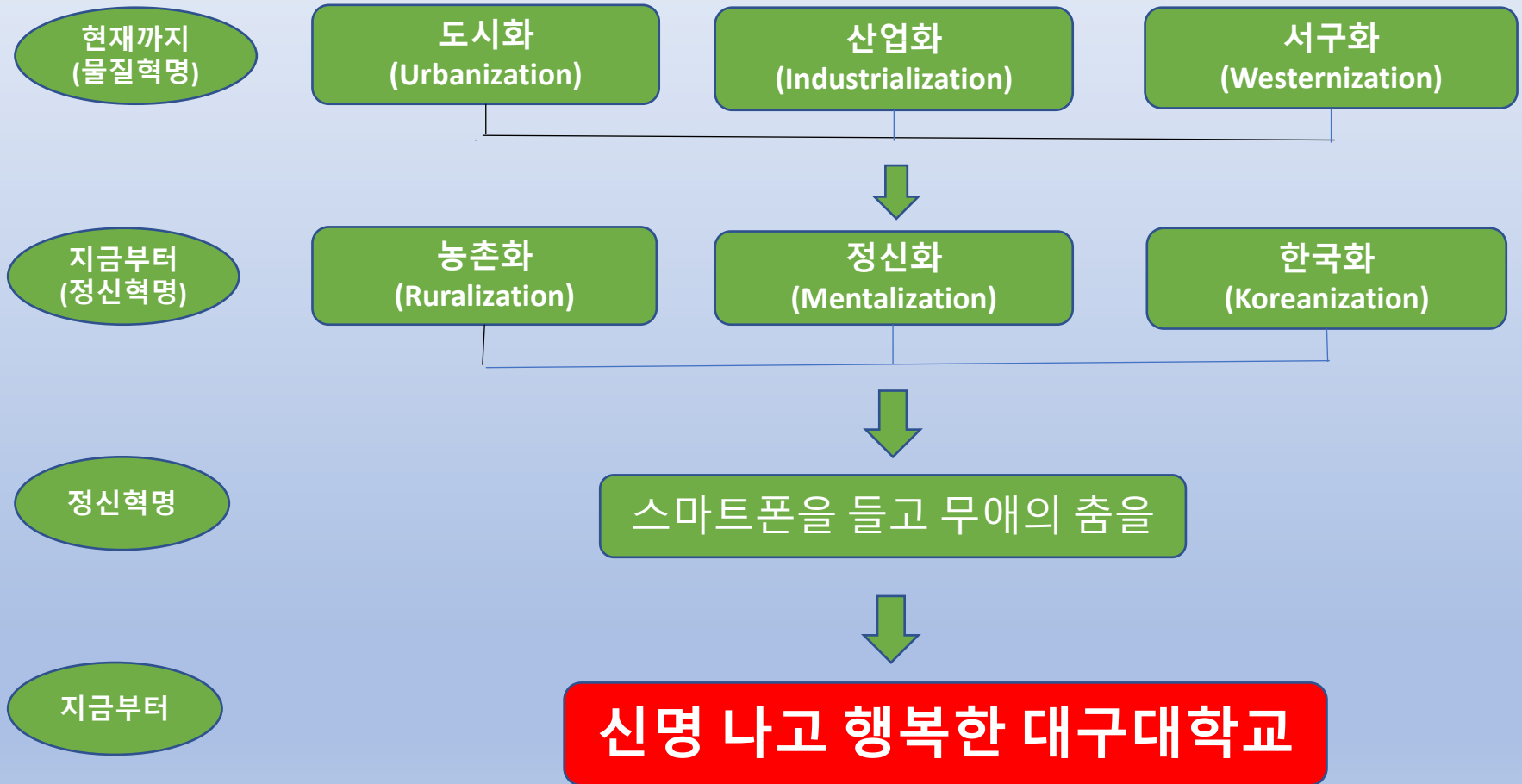
4. 사회적 공동체 가족과 우리 문화

- 사회적 공동체 가족문화: 우리 아이 우리 동네에서 키우기
- 산업화에 성공한 귀한 노인과 세계 최저의 출산율 귀한 어린이
- 세계 최저의 출산율: 2022년 3분기 출산율 0.794명
- 어린이 1인당 저출산 대책으로 사용된 비용: 지난 15년간 2380조 원(어린이 1인당 6,070만원)
- 육아전문 할아버지 할머니 교육
- 노인 일자리, 어린이 양육, 학부모의 경력 단절 동시 해결
- 세대 간의 갈등을 넘어 상호 협력과 행복한 세상
- K Pop, K Drama을 넘어 한류 문화의 종지 청도

V. 결론

- 수능을 없애면 노벨상이 나온다
- 사다리 걷어차기와 행정고시 및 사법고시의 폐지
- 행복하니까 청춘이다.
- 공부에서 학문의 시대로
- 디지털대전환과 데이터 경제, 역구독 경제
- 챗GPT , Bard의 존재의 이유
- 몸과 마음의 스마트 폰으로 행복한 세상으로
- 취직의 시대를 넘어 청년 창직과 청년연금
- 학생들과 대구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대구대학교 맛동산 개념도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